

2012년 서울시 자살사망자 통계분석

Analysis of suicide deaths in Seoul ; based on national statistic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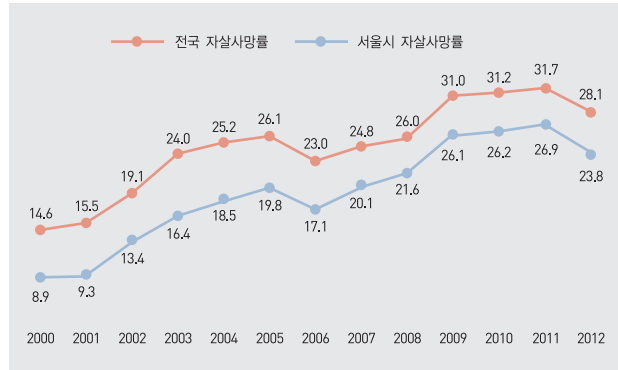
김동욱¹, 이구상¹, 이명수¹
D.W. Kim, G.S. Lee, M.S. Lee

1. 전국과 서울시 자살사망에 대한 비교

1) 자살사망률 연도별 변화추이(인구10만 명당)

전국과 서울시의 인구 10만 명당 자살사망률은 2006년 이후로 2011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가, 2012년에는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자살사망률 감소폭은 전국보다 서울시가 상대적으로 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자살사망률 연도별 변화추이(인구10만 명당)



2) 자살사망자수 연도별 변화 추이

전국의 자살사망자수는 2009년 1만 5천명을 돌파한 이후 3년 동안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였으나, 2012년 다시 1만 4천명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 자살사망자수 연도별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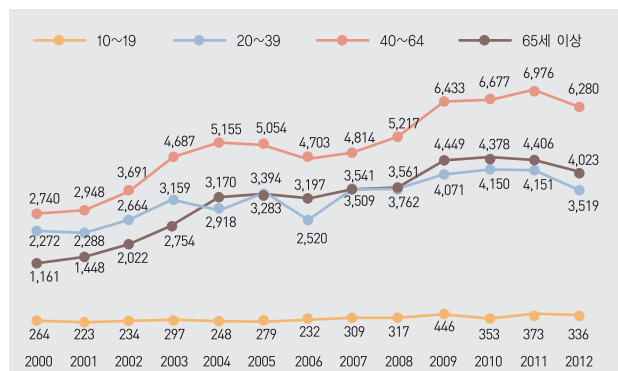
연도	전국 자살사망자수	서울시 자살사망자수
2000	6,460	919
2001	6,933	959
2002	8,631	1,376
2003	10,932	1,670
2004	11,523	1,887
2005	12,047	2,013
2006	10,688	1,742
2007	12,174	2,045
2008	12,858	2,200
2009	15,413	2,662
2010	15,566	2,668
2011	15,906	2,722
2012	14,160	2,391

서울시의 자살사망자수는 2009년 2천 5백명을 돌파한 이후 3년 동안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였으나, 2012년 다시 2천 3백명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이를 1일당 자살사망자수로 비교해 보았을 때 7.6명(2011년)에서 6.5명(2012년)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연령대별 자살사망자수 변화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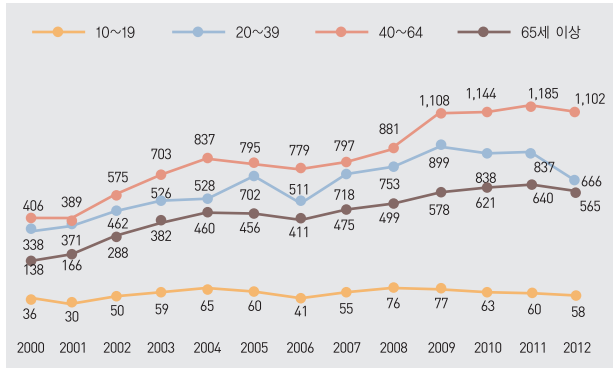
2012년 연령대별 전국 자살사망자수의 경우 전반적으로 2011년에 비해 모두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2011년 대비 2012년에 있어서 가장 큰 감소폭을 보인 연령대는 20세~39세로 17.96%였으며, 다음 순서로는 40세~64세가 11.08%, 10세~19세가 11.01%, 65세 이상이 9.55%였다.

★ 전국 연령대별 자살사망자수 변화추이



※ 0~9세 1명, 불명 1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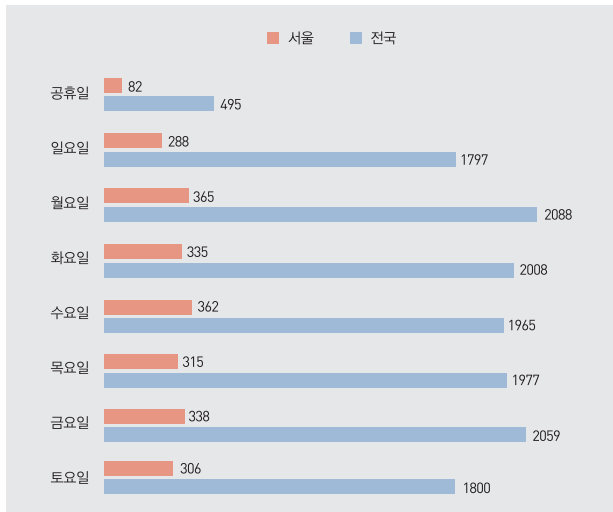
★ 서울시 연령대별 자살사망자수 변화추이



4) 서울시 연령대별 자살사망자수 변화추이

2012년 연령대별 서울시 자살사망자수의 경우 2011년에 비해 모든 연령대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대비 2012년에 있어서 가장 큰 감소폭을 보인 연령대는 20세~39세로 25.68%였으며, 다음 순서로는 65세 이상이 13.27%, 40세~64세가 7.53%, 10세~19세 3.45%였다.

★ 전국 서울시 요일별 자살사망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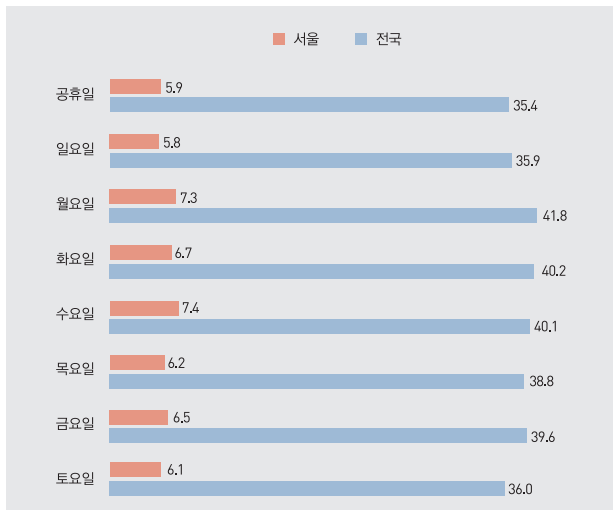


5) 전국 서울시 요일별 자살사망자수

전국의 요일별 자살사망자수의 경우 공휴일이 가장 낮았으며, 다음 순서로는 일요일, 토요일, 수요일, 목요일, 화요일, 금요일, 월요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 요일별 자살사망자수의 경우 공휴일이 가장 낮았으며, 다음 순서로는 일요일, 토요일, 목요일, 화요일, 금요일, 수요일, 월요일로 나타났다.

★ 전국 서울시 요일에 따른 1일 자살사망자수



6) 전국 서울시 요일에 따른 1일 자살사망자수

전국의 요일에 따른 1일 자살사망자수의 경우 공휴일(35.4명)이 가장 낮았으며, 다음 순서로는 일요일(35.9명), 토요일(36.0명), 목요일(38.8명), 금요일(39.6명), 수요일(40.1명), 화요일(40.2명), 월요일(41.8명)로 나타났다.

서울시의 요일에 따른 1일 자살사망자수의 경우 일요일(5.8명)이 가장 낮았으며, 다음 순서로는 공휴일(5.9명), 토요일(6.1명), 목요일(6.2명), 금요일(6.5명), 화요일(6.7명), 월요일(7.3명), 수요일(7.4명)로 나타났다.